

터키국민방문-동포간담회

- 한국경제와 북핵문제, 문제없다 -

“터키와의 교류, 생각보다 적어”

여러분 반갑다. 무슨 긴 말이 필요 있겠나? 여러분 모습이 그냥 우리 생각이
이고, 우리 한국의 국력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멀리 와서 얼굴
만나니까 대한민국이 참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모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모국이 그만큼 자랑스
로우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 대통령이 어디
가면 다 경제외교라고 얘기한다. 경제외교 성과가 얼마냐고 묻는다.

이번 방문 와서 모든 자리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것은 서로 어떻게 경제적
으로 도움 되고 이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기 이전에, 터키국민에게
한국국민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러 왔다고 했다. 55년 전 터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많은 터키국민들이 희생했다. 터키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한국사람들을 매우 사랑한다고 한다.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2002년 월드컵에서도 이심전심으로 불꽃이 튼다고 할까 강하게 전
달됐다. 48년이 되도록 국가원수가 한번도 방문하지 못했다. 마음 속으로
미안해 하던 터라 만사 제쳐놓고, 최소한 지난날 큰 도움 줬고 오랜 시간
이 지났어도 한국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터키국민들에게 인사 드리려고 방

문했다.

오다보니 우리 동포가 얼마나 살고 있나 생각이 낡다. 동포 간담회를 한다기에 무슨 동포가 터키에 그리 많으냐는 생각도 했다. 동포하면 나라가 쓰러지고 외세에 저항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더 이상 버티고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뜻을 품고 해외로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식민지가 되고 보니 살 길이 없어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어린아이 등에 업고 먹고 살길 찾아 해외로 간 것이 동포의 삶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 러시아가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독일 가면 광부, 간호사 얘기도 있다. 어떻게 보면 가슴이 찡한 한 맺힌 얘기랄지 옛날 얘기가 다 있다. 그런 얘기 있으면 동포들이 많이 사는 걸로 느껴지고 고난의 역사가 있어야 동포가 사는 것처럼.

터키에 무슨 동포가 있느냐 물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터키에 계신 여러분이 새롭게 개척해가는 한국의 국력, 한국의 역량을 상징하는 분들 아니냐, 예전처럼 힘겹고 어렵고 가슴 아픈 동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활력 있는 동포, 적극적인 한국을 상징하는 동포라면 좋겠죠. 기분이 좋다. 무슨 말을 할까 걱정도 안 되고 말하다 목이 메일 일도 없고 그래서 좋다. 그래도 객지라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나? (누군가 크게 “예“해서 웃음 터짐) 내가 그 말 안했으면 어쩔 뻔 했나?

개개인의 어려움이나 함께 느끼는 어려움을 한국과 터키가 좀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밀접하게 가까워졌으면 할 것이다. 그래서 터키도 그 일로 덕을 보고, 한국도 덕을 보는 그런 일 없을까 궁리를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터키가 가까운 사이인데, 그렇게 교류는 적은지, 무역도 적고 투자도 적고 그런 것 같아 꼼꼼이 살펴봤다.

실제로 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이 터키에서 뭐 한다는 게 그런 역량 안 됐던 것 같고, 90년대 개방정책 적극적으로 쓰면서 해외투자, 교역도 많이 하게

됐는데 잘 가다 97년 와서 그만 한번 팍 고꾸라졌지 않습니까? 외환위기로 해서 잘 가다가 무릎을 꿇은, 주저앉은 셈이다. 그러다보니 2000년까지 제대로 성장을 못 했죠. 2001, 2002년에 좋아졌나 했는데 2003년에 또 어려워졌다. 저도 대통령 되자마자 경제가 어려워져서 아주 힘들었다. 국내에서 견디는 것은 견딜만 했는데 해외실적을 보니, 쪽 증가하고 성장하던 것이 97년, 98년 와서 무너지고 뒷걸음질친다. 그래서 주춤했는데, 여러분 이제 다 극복됐다. 안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걱정 많이 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데, 내가 보기엔 다 극복된 것 같다. 한국경제 매우 건강하고 체력이 단단하고 원기왕성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운동해서 체력이 계속 건강해져가고 있다. 상당기간 동안 특별히 사고 안 치면 한국경제 쪽 뺏어나갈 것이다.(웃음)

“한국 경제,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제가 한국경제를 하면서 제일 첫 목표로 둔 것은 잘 하는 것보다는 실수하지 않는 것에 힘을 기울였다. 금융시스템 붕괴나 한 부분에 큰 고장이 생기거나 하면 나머지 부분도 연결돼 있어 큰 파탄이 오기 때문에 잘 관리해가는 것이다. 2003년의 어려움은 성장 잠재력, 어디 한군데가 골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2003년의 목표였다. 국민들은 하루가 힘든데, “견딤시다. 이 고비만 넘기면 건강하게 성장해간다, 참읍시다, 견딤시다”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웠지만, 지난 얘기라 하는데, 갑자기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체질이 크게 나빠지지 않게 회복할 수 없는 큰 경제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게 큰 문제였다.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선 앞으로 괜찮다. 그렇게 갈 걸로 말씀드리고. 그래도 한국기업이 터키에 투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에르도안 총리를 만나면서 알게 됐는데, 터키경제가 어려웠다가 좋아졌다는 걸 글로 읽었는데도 실감이 안 났는데, 총리와 얘기하면서 실감했다. 터키경

제가 어려웠고 경제가 안정된 토대에서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됐다. 경제인들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할 때 투자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투자가 늦어진 걸로 생각한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쌍방 모두가. 경제인들이 선택하고 잘 할 일이지만, 그 전보다 잘 이뤄질 것 같다. 경제인들 표정도 그렇던데요. 점심 때 간담회에 100명쯤 오실 거라고 사전에 보고 받았는데, 헤아려보진 못했지만, 예정보다 2-3배나 더 온 것 같다. 분위기가 참 좋았다. 박수를 거기서 엄청 많이 받았다.(박수)

예정에 없이 에르도안 총리가 보스포러스 크루즈를 시켜줬다. 시켜주신 것이지요(웃음) 같이 했는데 크루즈 안했으면 참 억울할 뻔 했다. 대통령 되고 제일 좋은 구경했다.(박수)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지만 돈만 있으면 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좋겠다.(웃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대통령이에요, 안 가면 큰일 나겠다 생각했다.(웃음) 넉넉하진 못해도 아름다운 곳이다. 바쁘더라도 때때로 구경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자리에서 비자 문제를, 외교부 장관이 일깨워줘서 했다. 국민들 겪는 불편들 말씀 드렸다. 저도 그렇지만, 그 문제 즉답되는 게 아닌데, 귀담아 듣는 것 같습니다.(박수) 다른 말씀 다 드렸고 최초 체류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돼 있는 건 말씀 못 드렸는데, (에르도안 총리가) 대사한테 말하라고 했으니 (대사가) 말씀하십시오. (주 터키 대사를 바라보면서) 매우 호의 갖고 다뤄줄 걸로 생각한다. 호의를 갖고 계신 게 틀림없으니까요. 노력해서 그렇게 하고요,

82년에 영사관을 폐쇄했다. 까마득한 옛날 얘기고, 대사관 영사관 폐쇄한 걸 회복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옛장수 맘대로 옛 하나 떼주고 하는 식으로는 못하고 전체 판을 놓고 금을 그어야 하거든요. 예산증가의 속도라든지 그런 계획을 짜서 해야 하는데, 이스탄불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검토할 때 자료를 갖고 하는데, 자료를 2003년, 2004년 자료로 하

면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웃음) 2005년 최신 자료로 업그레이드해주시고. 숫자로 보는 실상과 현지서 부닥쳐보는 실상이 다르거든요. 외교부 장관이 와서 활력 있는 동포사회를 보고, 한·터키 경제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해도 가능성이 높은 쪽을 평가하지 않겠나. 박수 쳐주셔야죠.(웃음과 박수)

김상진 회장님, 회장 참 오래하신다. 초대 회장하고 지금까지 하는데 별로 도전자 없는 모양이죠. 인사말하는 걸 보니, 여간 준비하지 않으면 도전하기 어렵겠다. 중요한 문제를 잘 정리해서 전해줬다. 회장 오래 하겠다.(박수) 평통자문위원도하십니까? (했습니다.) 이재경 협회장, 수고 많다. 역시 말씀 잘 하시고. 제 인사는 이렇게 끝내겠다.

“한미동맹, 아무 문제없다”

북핵, 한미동맹, 한일관계 등 여러 어려운 문제가 많다. 한일관계는 문제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해결이 되면 좋지만 해결되든 안되든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국민은 한국국민대로 지켜갈 원칙적 자세가 있다. 원칙적 자세를 갖고 뺏어나가면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빨리 성과 따서 문제 해결되서 좋고, 정치인은 성과 나서 좋고, 이렇게 해서 허겁지겁 사태를 미봉하려 하면 겉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아도 안으로 끓아 터져 문제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한다. 근본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믿고 공존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서로 가져야 하는 도리가 있다. 배고프고 힘없는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도리를 다 주장하지 못할 때도 있다. (지금은) 시간 갖고 당당하게 도리 얘기하고 우리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길게 보고 합당하게 행동해 나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적어도 제 임기 동안에는 그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자 제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다.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라서 제게 맡겨 달라.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결론에 있어서 북한도 핵문제가 목표가 아니고 안전보장과 지원이 목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정권 붕괴가 목표가 아니고 핵무기 보유와 확산을 막는 게 목표고 그게 이뤄지면 관계 정상화, 안전보장, 지원까지 하겠다고 얘기한다. 기본과 근본에 있어서는 같은 약속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풀릴 것이다. 순서의 문제인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적으로 그만큼 역량 있고 책임질 만한 나라들이 함께 관여하고 있다. 한국도 세계적인 책임을 나눌 만한 수준의 국가다. 이런 국가들이 한 테이블에 있는데 왜 못 풀겠나?